

자비와 화쟁의 대작불사가 원만회향하기를 기원합니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고통의 현장을 어루만지고, 원융무애의 정신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는 정성스러운 발걸음은, 우리의 몸이 그렇듯 사회를 지탱하는 자양분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발원과 실천이 끊이지 않아 생명이 싹트고, 큰 줄기를 이루어 꽃과 결실로 이어지듯, 삶의 터전에 공존과 화해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가 온 국민을 너무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 앞에 있는 이웃의 공포로 인해 생명이 얼마나 더 고귀한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무사히 생환하기를 기원합니다.

생명이 소중한 정토를 기원합니다.